

○ 본 해설지는 금속노조가 작년 12월 18일에 발표한 <2024년 금속노조 자동차부품사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>중 주요부문을 요약한 것입니다. (2024년 8월~10월까지 총 117개 사업장 조사) 보고서 원자료는 충남지부 홈페이지(ch.kmwu.kr) 기타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부품사 32.5% “정규직 감소 예상”

■ 2026년까지 정규직이 ‘감소’ 한다고 응답한 부품사 비율은 32.5%. △사업장 규모별, 300~999인 사업장(35.5%), 1000인 이상 사업장(34.8%), 100인미만 사업장(28.6%), 100~299인 사업장(27.9%) 순. △벤더지위별, 1차 벤더 사업장(38.9%), 2차 벤더 이하 사업장(34.6%) 순. △부품생산별 내연기관생산 사업장(52.2%), 비내연기관생산 사업장(26.1%) 순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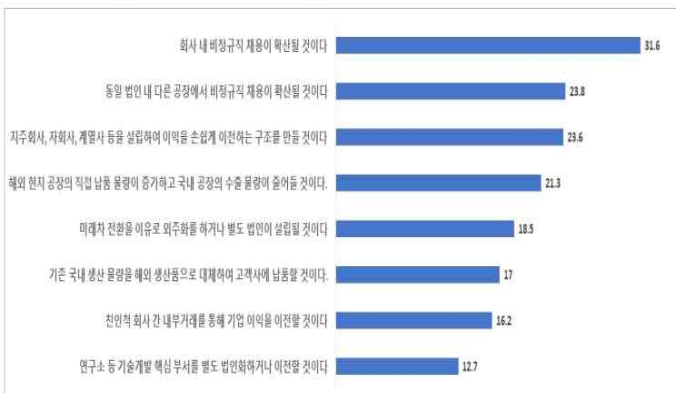
(그림 3-2) 2026년 종사상지위별 고용변화 예상(%)



향후 기업변화 예상 1순위 “비정규직 채용 확대”

■ 향후 3년간 예상되는 회사 고용-물량배치-기업구조 변화 예상도 조사 결과, △비정규직 채용이 확산될 것 △동일 법인 내 다른 공장에서 비정규직 채용이 확산될 것 △지주회사, 자회사, 계열사 등을 설립하여 이익을 손쉽게 이전하는 구조를 만들 것, 순으로 나타남.

(그림 3-18) 향후 3년간 고용-물량배치-기업구조 변화 예상 인식도(100점 만점)



완성차(상위 업체)와 거래관계 어려운 이유

■ 부품사가 가장 거래가 많은 상위 업체(바로 윗 벤더)와의 거래관계에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요인은 △원자재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(50.8%) △납품단가 인하 요구(45.70%) △지나친 품질 수준 요구(35.5%) △불규칙한 발주(수시 발주) 17.9% 순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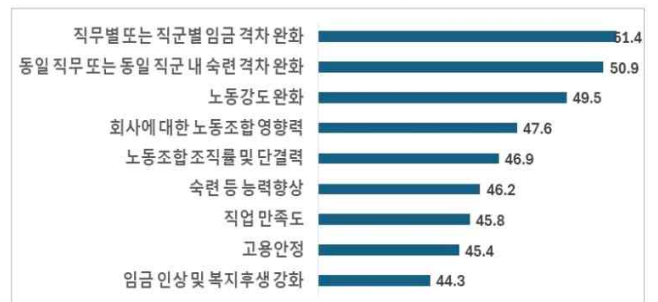
(그림 4-22) 상위업체 관계 어려움 1+2순위 합계(%)



미래차 확산이 노조에 미치는 영향 “긍정보다 우려”

■ 전체적으로 긍정 예상도는 100점 만점 기준 50점을 조금 넘거나, 50점 이하임. 미래차 확산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미칠 긍정 예상도는 △직군별 임금 격차 완화(51.4점) △동일 직무 또는 동일 직군 내 숙련 격차 완화(50.9점)이며 △노동강도 완화(49.5점) △회사에 대한 노동조합 영향력(47.6점) △노동조합 조직률 및 단결력(46.9점)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.

(그림 5-5) 미래차 확산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 영향 긍정예상도 평균(100점 만점)



금속노조 부품사 필요 정책사업 “완성차와 연계”

■ 금속노조가 집중해야 하는 부품사 정책사업으로 △완성차 지부·지회와의 교류, 연계 강화(82.3점) △미래차 등 기술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역량 강화(80.8점) △미래차 부품사 전략조직화(79.9점) 순으로 꼽음.